

洪모씨는 50대 초반의 중소기업 사장이다. 작년 중소기업들이 부도와 파산의 회오리에 말려 우수수 떨어질때도 그의 회사는 별탈없이 넘겼다. 밖에서 보면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성공한 기업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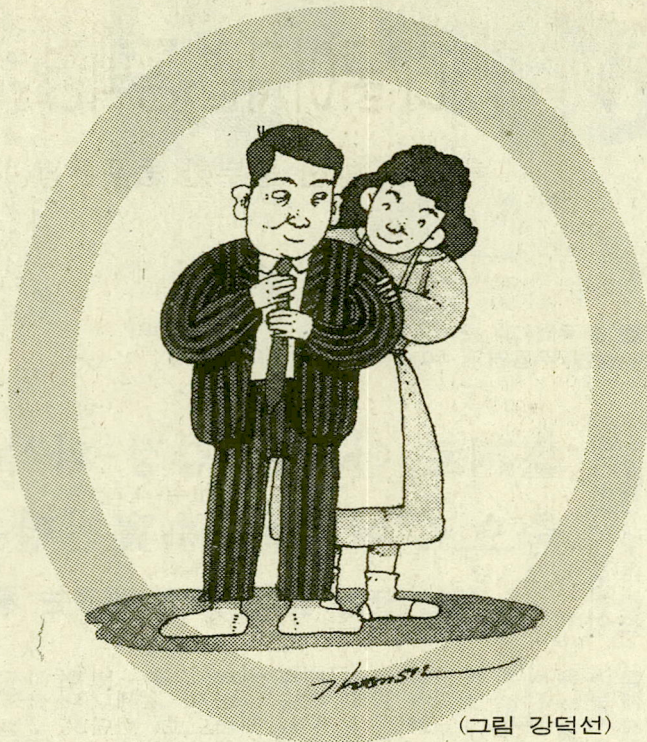
그러나 정작 그는 요즘 우울하다.



간혹 외로움도 진하게 느낀다. 산다는 것이 허무하다고 느낄때도 많다.

옛날 같으면 그냥 듣고 지나칠 사소한 이야기조차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경우도 많아졌다.

어제 저녁일만해도 그렇다. 밤늦게 집에 들어오니



(그림 강덕선)

“나는 뭔가” 흔들리는 家長

40~50대 경제안정불구 아내-자식 무관심에 소외감

마침 과일이 쟁반에 가득 담겨 있었다. 시장기도 들어서 그는 아무런 생각없이 과일 몇개를 먹어 치웠다.

그런데 방에서 나오면서 그 광경을 본 아내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아니 여보,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요, 큰애 줄 과일을 당신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 참, 속상해 죽겠네...』

洪씨에게 소리치는 아내의 얼굴은 무척 낯설어 보였다.

고3인 큰 딸아이를 생각하는 아내의 심정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큰 딸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는 것도 못마땅하다. 이제 가정에서도 가족들의 관심밖으로 밀려나는구나 하는 소외감

경험하는 40, 50대 남성들이 적지 않다.

이들의 안정조차 도리어 불안의 원인이 된다. 일상적인 매너리즘이 그들을 권태롭게 만들고 정체감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반역(?)을 꿈꾸고 모든 것을 다버리고 무엇인가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가정과 아내 심지어는 자식들에게서도 해방되고 싶은 것이다.

현실굴레 벗고싶은 「반역」 꿈꾸기도

을 그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

洪씨는 스스로가 초라하다고 느껴진다. 애들은 애들대로 따로 놀고 아내는 아내대로 큰 애 뒷바라지와 TV드라마에 정신이 없다.

요즘에는 홍씨처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심한 불안감과 허탈감을 동시에

그러나 현실은 그들에게 한발짝의 일탈도 허락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현실에 사로잡힌 포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들은 더욱 더 심한 허탈감에 빠진다.

이 위기의 40, 50대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아내들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다. 지치고 방황하는 중년 가장들에게 아내들의 격려가 필요하다. 바로 지금.

崔淳旭(국민대철학과교수)